

증시 급락에도 ‘반등 베팅’… 개미들 빚내서 레버리지 ‘물타기’

반도체 ETF 이달 3154억원 순매수
SK하이닉스 2263억·삼성 891억 물려
7월 대거 매수 후 두 달 연속 순매도
코스피 18.83% 하락에 다시 매수세
개인 투자손실 6조 넘어 부담 가중
전문가 “장기보유 주의·위험 분산”

직장인 김모(36)씨는 이달 초 장모님에게 3000만원을 빌렸다. 그는 은행에서 3000만원을 빌려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5000만원어치 샀다. 손실률이 80%에 육박하고 반도체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다고 판단해 ‘물타기(추가 매수)’에 나선 것이다. 김씨는 “여기서는 분명히 오를 것 같아 한 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손실률이 겨우 55%로 줄었지만, 의사 직전이라고 개라도 뺨뽀 내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가 휘청이는 와중에도 개인투자자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개인은 이달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2종 제외) 14종을 순매수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반등에 베팅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을 분산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한다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3145억 순매수, “이제 오를 거야”

25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지난 1~23일 개인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14종을 총 3154억원어치 사들였다. 순매수액은 SK하이닉스 7종 2263억원, 삼성전자 7종



따는 AI로 생성한 이미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하락에 두 배로 베팅하는 단일종목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낙 떨어 만에 60% 안팎의 손실을 냈다.

89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개인은 지난 7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14종을 총 2조7728억원 순매수했으나 같은 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박금이 상환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 이후 순매도세로 돌아섰다. 순매매액은 8월 -6484억원, 9월 -4979억원이었다.

개별 종목을 보면 개인은 이달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를 1529억원 순매수했다. 이는 국내 상장 ETF 중 11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KODEX X 레버리지, KODEX 반도체레버리지 등도 각각 1조448억원, 2564억원을 사들이며 순매수세가 레버리지 상품으로 쏠리는 경향을 나타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반등을 기대하는 심리가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3일 코스피는

18.83% 떨어졌다.

반면에 외국인은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함께 사들이며 ETF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달 외국인은 KODEX 레버리지를 KODEX 20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483억원 순매수했다. 이와 함

께 코스피200의 일간수익률을 -2배로 추측하는 ‘곱버스’ 상품인 ‘KODEX 200선 물인버스2X’를 ETF 중 5번째로 많은 513억원 순매수했다.

◆투자 성향 등에 맞게 비중 가져가야

문제는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개인이 이미 큰 손실을 봤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상장지수상품(ETF·ETN) 출시 이후 8월 14일까지 개인투자자의 손실액은 총 6조3130억원에 달했다. 실제 매대로 확정된 손실이 2조3242억원, 보유 상품의 평가손실이 3조9888억원이었다. 최근 10월 폭락에 따른 손실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연량별로는 40대 이하의 손실액이 3조3482억원으로 전체의 53.0%를 차지했다. 40대가 2조5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조8665억원), 30대(1조912억원)가 뒤를 이었다.

미국 레버리지 ETF 전문 운용사인 TradeETFs(트레이더 ETF)의 러셀 텐서 사장

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레버리지 ETF의 성장성을 강조하면서 장기 보유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매일 수익률 배수를 재설정하는 상품은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기초자산의 누적 수익률과 ETF 수익률 사이에 차이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일 재설정되는 상품을 1주일 이상 보유하면 원치 않는 복리 효과가 발생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를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담을지도 투자자마다 달라야 한다고 했다. 텐서 사장은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레버리지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지는 위험 추구 성향과 연령, 레버리지 활용 적합성에 따라 달라진다”며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명확히 알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소상공인 폐업률 소매·음식점업 최고

>> 1면 ‘불황의 그림자…’서 계속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소매업(15.40%)과 음식점(15.14%)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비중이 특히 큰 6대업종(제조·도매·소매·음식·숙박·서비스)의 폐업률은 11.08%를 기록했다. 폐업 사업장 가운데 49.2%는 3년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이었다. 특히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68.5%는 빚을 보유하고, 평균 부채도 사업장당 8500만원에 달했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들의 50.4%는 사업 부진을 폐업 사유로 꼽았고, 62.5%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고객이 줄어 경영난이 심화했다고 응답했다.

◆새출발기금 올해 말 종료

새출발기금의 수요는 여전하지만, 새출발기금은 올해 말 운영 종료로 앞뒀다. 정부는 지난 2024년 9월 새출발기금의 신청 요건에서 코로나19 피해요건을 삭제하면서 신청 기간을 2026년 말까지로 정했는데, 이후 2025년 3월과 2025년 9월 두 차례의 지원 대상 확대에도 운영 기간은 확대하지 않았다.

새출발기금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의 운영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의 여러 상황과 고금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새출발기금의 연장 필요성이 광장히 클 것 같다”라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개인 반도체 저가 매수… 外人·기관 매도

>> 1면 ‘역대급 실적에도 적자…’서 계속

개인이 ‘반도체 투톱’의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판단한 것과 달리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에 나서면서 투자 주체별 판단이 엇갈렸다.

하반기 개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2조4418억원)와 삼성전자유(1조1456억원), SK하이닉스(1조3743억원)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세 종목의 순매수 금액은 총 4조9617억원으로, 같은 기간 개인의 코스피 전체 순매수 금액의

약 6.4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개인들이 조바심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 분산도 중요하다. 펀드천 부부장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크(PB)는 “선부른 추격 매수는 피해야 한다”며 “수익을 내려면 ‘공포에 (주식을) 사고 탐욕에 판다’는 격언을 엄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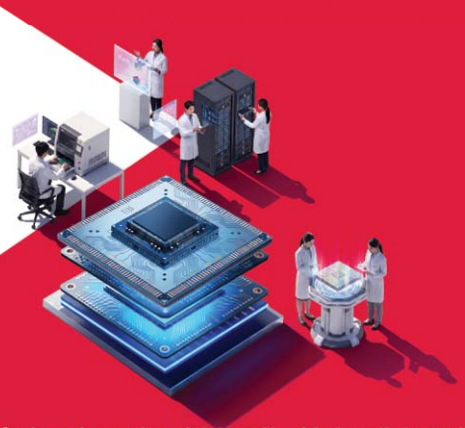


AI의 가능성을 가능하게

반도체와 AI 인프라가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게

피지컬 AI와 모빌리티가
더 가볍고 더 오래갈 수 있게

**LG화학이 AI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반도체/AI 인프라용 고성능 첨단소재 솔루션]



[로봇/모빌리티 초경량 고내구성 소재]